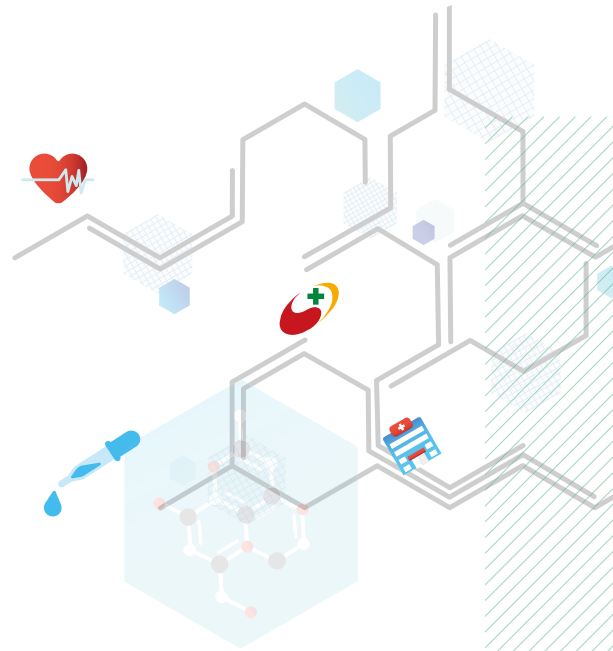


산업보건 주요뉴스



화재 소화기 제조업체 독성간염 의심 사망자 발생

전면작업중지 및 정밀재해조사 실시 중

고용노동부는 경기도 안성 소재 화재용 소화기 제조 사업장에서 소화약제(HCFC-123)에 의한 급성 독성간염 발생 사실을 인지하여 해당 사업장에 대해 전면작업중지 및 정밀재해조사를 진행 중임을 밝혔다.

화재용 소화기 용기에 소화약제 충전 업무를 하던 파견노동자 2명이 독성간염 증세(추정)로 치료를 받던 중 한 명(남, 23세)이 8월 24일(목) 오전 사망하였으며, 다른 한 명(남, 23세)은 상태가 호전되고 있는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재해사실을 인지한 8월 18일부터 현재까지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를 현장에 파견하여 해당 사업장의 화학물질 취급현황을 조사하고 간독성 의심물질(HCFC-123)을 확인하였다.

또한, 현장조사 과정에서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실과 불법파견사실을 확인하고, 사업장에 전면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안전보건 및 불법파견에 대한 감독과 재해원인 규명을 위한 정밀재해조사도 실시 중이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사안의 중대성과 유사재해발생 가능성을 감안하여 소방청의 협조를 통해 해당 물질을 사용하는 소화기 제조업체(20개소) 명단을 확보하고 오늘부터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시 위험물질(HCFC-123)에 노출 위험이 있는 모든 노동자에 대해 임시건강진단을 명령하여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공학적인 대책과 방독마스크 착용 등 보호구 착용을 지도하게 된다.

임시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국가에서 지원하되 임시건강진단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는 사

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조치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향후 점검결과를 분석하고 관계부처 협조를 통해 추가적인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동종·유사 사업장, 산업보건전문기관, 응급의학회·내과학회·직업건강의학회 등에 중독사례를 전파(8, 21~23)하고, 신고상담전화(1644-8595 바로구호)를 운영하여 조기에 유사사례를 발견,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김왕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사업장에서 해당물질을 취급할 때에는 반드시 환기장치를 갖추고 적합한 보호구(방독마스크)를 착용해 줄 것을 당부하고, 사업주 및 노동자가 임시건강진단명령 등 정부의 긴급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하는 한편 해당물질을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발주사·원청·협력업체가 함께하는 안전점검

안전보건공단, 제258차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화학공장 대형사고 예방 위한 안전점검 실시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이영순)은 제258차 안전점검의 날을 맞이하여, 전국 27개 지역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안전점검의 날은 가정과 사업장 구성원의 자율적인 안전점검을 유도하여 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안전문화 운동이다.

울산소재 S-oil 설비 증축현장에서 실시된 이번 중앙 안전점검에는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 안전보건공단 교육안전문화이사, S-oil 및 대우건설 현장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안전점검에는 최근 발표한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 중 하나인 원청(시공사)과 발주자 등의 책임 강화를 위해 발주자인 S-oil, 시공사인 대우건설과 협력업체들이 함께 참여했다.

이번 안전점검을 통해 발주자는 공사단계별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시공사의 산업안전보건대책 이행 여부를 점검했으며, 시공사는 설계상의 위험 포인트와 작업환경관련 정보들을 협력업체와 공유하는 등 산재예방을 위한 현장 모든 구성원들의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이와 함께, 화학공장 대형사고 예방 대책과 함께 설비 증축·보수 현장의 크레인 안전관리, 철골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사항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호성 안전보건공단 교육안전문화이사는 "위험을 발견하고 개선하는 과정에는 원·하청 구분이 없다"라며, "이번 점검을 계기로 발주처와 원청, 협력업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안전문화가 확산되고 정착 되길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은 지속가능경영의 필수 전략”

노사발전재단, 2017년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1차 포럼 개최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이정식)은 30일 중소기업중앙회 2층 중연회실에서 ‘글로벌 CSR 트렌드 및 지속가능 전략’을 주제로 국내외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CSR)과 노사관계 등의 정보를 교류하는 ‘2017년 글로벌 지속가능 경영 1차 포럼’을 개최했다.

노사발전재단은 △노사상생을 위한 재정지원 및 교육사업 △일터혁신컨설팅 및 일문화개선 지원 △신중년의 인생 3모작 지원 △노동분야 국제교류협력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이다.

이번 포럼은 기업의 CSR 활동이 더 이상 리스크 방지가 아닌 지속가능경영의 필수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이 중점적으로 진출해 있는 중국 및 동남아시아 국가의 CSR 트렌드를 살펴보고 지속가능경영 전략에 관한 심도 있는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포럼에는 국내외 CSR 관계자 및 인사노무 담당자, 학계 등 CSR에 관심 있는 전문가들이 많이 참석했다.

이날 ‘사회공헌 트렌드와 임팩트 전략’을 주제로 발표한 서명지 CSR IMPACT 대표는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와 글로벌 기업의 공익활동, 연도별·분야별 사회공헌 지출 추이를 통한 사회공헌 트렌드 및 사회공헌 임팩트 측정을 통하여 사회적 성과사례를 공유하였다.

또한, 기업별 사례발표에서는 강혁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사무국장, 조정은 CJ CGV CSV 파트 부장이 그동안의 사회공헌 활동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였다.

배수남 노사발전재단 국제노동센터장은 “이제는 우리나라 주요 진출국가의 CSR 활동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의무화, 법제화되고 있는 추세”라면서 “해외투자 기업들은 지속가능경영의 필수 전략으로 CSR을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포럼은 2016년 해외투자기업과 협력하여 총 5회 개최 하였으며 작년 포럼성과를 바탕으로 자료집(가제 : 어서와요, 노동존중 CSR)을 10월 말에 발행할 예정이다.

올해 2차 포럼은 책자발간 기념식 및 2018년 포럼 주제에 관한 토론회 형식으로 11월에 개최될 예정이며 포럼 참가자에게 책자를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다.

2017년 상반기 기준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인력충원, 부족현황 및 채용계획 등을 조사한 2017년 상반기(4월 기준)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2017. 1분기 구인인원은 850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31천 명(3.7%) 증가

채용인원은 757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27천 명(3.8%) 증가

구인인원 및 채용인원 증가폭은 전년대비 소폭 상승

직종별 : 구인 및 채용인원은 경영·회계·사무 관련직(구인 108천 명, 채용 98천 명), 교육 및 자연과학·사회과학 연구 관련직(구인 91천 명, 채용 89천 명), 보건·의료 관련직(구인 70천 명, 채용 63천 명), 경비 및 청소 관련직(구인 68천 명, 채용 66천 명) 순으로 많음.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은 법률 관련직(구인 21.3%, 채용 21.7%), 환경·인쇄·목재·가구·공예 및 생산 단순직(구인 18.3%, 채용 12.3%), 전기·전자 관련직(구인 17.6%, 채용 20.2%) 등에서 높게 나타남

산업별 : 구인 및 채용인원은 제조업(구인 166천 명, 채용 131천 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구인 113천 명, 채용 105천 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구인 113천 명, 채용 106천 명) 순으로 많음.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은 건설업(구인 16.3%, 채용 20.8%), 광업(구인 15.6%, 채용 16.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구인 13.5%, 채용 14.4%) 등에서 높게 나타남

규모별 : 300인 미만(구인 682천 명, 채용 596천 명)이 300인 이상(구인 168천 명, 채용 160천 명)보다 구인 및 채용인원이 많음.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은 300인 미만(구인 2.3%, 채용 2.4% 증가)보다 300인 이상(구인 10.0%, 채용 9.0% 증가)에서 높게 나타남

2017. 1분기 미충원인원*은 전년동기대비 3천 명(3.4%) 증가

미충원율은 전년동기와 동일

2017. 1분기 동안 사업체에서 적극적인 구인에도 불구하고 인력을 충원하지 못한 미충원인원은 94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3천 명(3.4%) 증가하였고, 미충원율은 11.0%로 전년동기와 동일.

직종별 : 미충원인원은 운전 및 운송 관련직(18천 명), 환경·인쇄·목재·가구·공예 및 생산 단순직(11천 명), 경영·회계·사무 관련직(10천 명) 순으로 많음. 미충원율은 운전 및 운송 관련직(32.7%), 섬유 및 의복 관련직(25.6%), 재료 관련직(24.0%), 환경·인쇄·목재·가구·공예 및 생산 단순직(22.7%) 순으로 높음

산업별 : 제조업(36천 명), 운수업(16천 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8천 명), 도매 및 소매업(7천 명) 순으로 미충원인원이 많음. 미충원율은 운수업(36.5%), 제조업(21.4%), 하수·폐기물처리·원료 재생 및 환경복원업(17.2%) 순으로 높음

규모별 : 300인 미만(86천 명)이 300인 이상(8천 명)에 비해 미충원인원이 많음. 미충원율은 300인 미만(12.6%)이 300인 이상(4.6%)보다 높게 나타남

미충원 사유 : 구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을 충원하지 못한 사유를 보면,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구직자의 기대와 맞지 않기 때문'(23.8%), '구직자가 기피하는 직종이기 때문'(16.5%) 등이 높음

직능수준이 높을수록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학력·자격 또는 경력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이라는 비율이 높음.

직능수준이 낮을수록 '구직자가 기피하는 직종이기 때문',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구직자의 기대와 맞지 않기 때문'의 비율이 높음.

2017. 4. 1 기준 부족인원은 전년동기대비 7천 명(2.4%) 감소

인력부족률은 전년동기대비 0.2%p 하락

2017. 4. 1 기준 사업체가 정상적인 경영 및 생산활동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부족인원'은 286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7천 명(2.4%) 감소하였고, 인력부족률은 2.4%로 전년동기대비 0.2%p 하락함.

직종별 : 부족인원은 경영·회계·사무 관련직(35천 명), 운전 및 운송 관련직(35천 명), 환경·인쇄·목재·가구·공예 및 생산단순직(27천 명), 영업 및 판매 관련직(25천 명), 기계 관련직(22천 명) 순으로 많음. 인력부족률은 운전 및 운송 관련직(5.1%), 환경·인쇄·목재·가구·공예 및 생산 단순직(4.1%), 식품가공 관련직(4.0%) 순으로 높음

산업별 : 제조업(91천 명), 운수업(31천 명), 도매 및 소매업(27천 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4천 명) 순으로 부족인원이 많음. 인력부족률은 운수업(4.8%), 숙박 및 음식점업(3.9%), 제조업(2.8%) 순으로 높음

규모별 : 300인 미만(262천 명)이 300인 이상(24천 명)에 비해 부족인원이 많음. 인력부족률도 300인 미만(2.8%)이 300인 이상(1.0%)에 비해 높음

2017. 2분기~2017. 3분기 채용계획인원은 전년동기대비 5천 명(1.5%) 감소

2017년 2/4분기부터 3/4분기 동안 채용계획인원은 308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5천 명(1.5%) 감소하였으나, 300인 이상 사업체의 채용계획인원은 증가(+1.8%).

직종별 : 채용계획인원은 경영·회계·사무 관련직(38천 명), 운전 및 운송 관련직(36천 명), 환경·인쇄·목재·가구·공예 및 생산 단순직(28천 명), 영업 및 판매 관련직(26천 명) 순으로 많음

산업별 : 제조업(95천 명), 운수업(33천 명), 도매 및 소매업(27천 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5천 명), 건설업(25천 명) 순으로 채용계획인원이 많음

규모별 : 300인 미만(274천 명)이 300인 이상(33천 명)에 비해 채용계획인원이 많음 📌